



오늘 '캣츠' 개막 7일 개막되는 '캣츠' 광주 공연에 앞서 출연 배우들이 6일 오후 광주문예회관에서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다. 전세계 뮤지컬 팬들을 사로잡은 오리지널팀 '캣츠' 광주 공연은 오는 16일까지 계속된다. <관련기사 15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양컨부두 우울한 준공식

3단계 1차부두 완공... 물동량 줄어 50%도 가동 안될 판

5년간의 공정 끝에 6일 광양항 3단계 1차 부두가 준공됐으나 정작 광양항의 물동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양항의 물동량 감소는 열악한 배후부지 여건, 취약한 인센티브, 경쟁항만인 부산항 물동량의 급증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광양항은 2009년 공사체제로 전환될 경우 1조 2천억원에 이르는 부채의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부두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골길 처지에 놓여 양항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해양수산부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6일 오전 함덕수 국무총리, 박준영 전남지사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인사와 항만 관계자, 지역주민 등 1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항에서 3단계 1차 부두 준공식을 가졌다.

그러나 부산항과 더불어 양항체제의 한축인 광양항은 이용 선사가 늘지 않고 지난 2005년 중국 상하이 양산항 개항 등의 영향으로 중국 동북부에서 창출되는 환적물량이 줄어 물동량이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광양항의 물동량(수출입+환적)은 모두 98만5천TEU(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한개)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0만2천TEU보다 0.3% 감

소한 수치이며 올해 목표량 220만TEU의 45%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부산항은 올해 7월까지 모두 773만6천TEU를 처리해 지난해 같은 기간 697만1천TEU보다 11%나 증가해 광양항과 큰 대조를 보였다.

이와 함께 광양항은 3단계 1차 부두 준공으로 연간 처리 용량이 550만TEU에 이르게 됐지만 올해 처리 목표량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20만TEU에 그쳐 투자에 대한 경제성 논란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서 지난해부터 조성되고 있는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입주 업체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체보다는 물류업종에 치중해 항만 활성화에도 한계를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광양항과 부산항을 단순한 화물처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물류허브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준공식 기념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세계 주요 항만은 인프라 확충과 인근 배후단지와 연계한 기업 유치로 통해 고부가가치 화물을 창출하고 있다"며 "광양항과 부산항은 배후단지에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고부가가치의 재가공화물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내는 '화물창출형' 항만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5면>

▲광양항 3단계 1차 부두=총사업비는 3천770억원. 5만t급 컨테이너 선박 4대가 동시에 집안할 수 있게 됐으며 광양항의 물동량 처리 능력도 160만TEU가 늘었다. 1차부두 사업 완공으로 광양항은 직선 부두 길이가 5.7km, 수심이 17m에 이르게 됐고, 연간 550만TEU 처리 능력과 16개 선석치 물류허브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일학원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abuniv.ac.kr

전남과학대학
www.jnsc.ac.kr

'이명박 고소'에 '국정조사' 맞붙 靑-한 정면충돌... 전면전 예고

대선을 100일 남짓 앞둔 가운데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정면 충돌, 대선 정국에 파장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7일 서울중앙지검에 '참여정부 정치공작설'을 제기한 이명박 후보와 이재오 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박계동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며 한나라당은 청와대를 겨냥, '야당후보 뒷조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이 같은 양측의 충돌은 대선을 앞두고 더욱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대선 정국의 변수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6일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야당 후보 뒷조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가 이명박 대선후보 및 주요 당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방

침에 맞서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박형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세청, 국정원과 같은 국가기관이 동원돼 이명박 후보를 뒷조사 한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정운재·신영아 게이트와 관련하여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지만, 미진할 경우 특검을 추진키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한 국가특고교회협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대응을 안 하겠다. 노코멘트"라면서 "두고 봅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선 개입 의도 및 야당 탄압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7일 서울중앙지검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및 주요 당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고소장 작성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 때문에 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社 告

3개월간 42,195쪽 책 읽기 '빛고을 독서마라톤' 함께 뽀시다

14일까지 참가 신청

광주일보사가 책 읽는 풍토 조성을 위해 광주시교육청과 공동으로 범시민 독서운동인 '빛고을 독서마라톤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부터 매년 열리게 될 빛고을 독서마라톤대회는 42,195km의 마라톤 경기를 독서로 접목시킨 것으로, 참가자가 읽은 책 1페이지를 1m로 환산해 각 참가부문에 완주 여부로 입상자를 가립니다.

부문별 1~3위에게는 광주시교육감과 광주일보사장 표창과 메달, 상금이 수여되며 완주자에게는 완주증서와 기념품이 주어집니다.

- 참가대상: 광주시교육청 관내 초·중·고 학생 및 광주시민
- 참가신청: 9월 14일까지
- 대회기간: 9월 15일~12월 15일(3개월)
- 참가부문:
 - ▶개인부문(5km(5천 페이지), 10km(1만 페이지), 무한도전(독서챌린지))
 - ▶가족부문(5인 이내)-하프코스(21.975km, 2만1천97페이지), 풀코스(42.195km, 4만2천195페이지)
 - ▶단체부문(6인 이내)-하프코스(21.975km, 2만1천97페이지), 풀코스(42.195km, 4만2천195페이지)
- *부문별 중복 응시 불가
- 접 수: 빛고을 독서마라톤대회 홈페이지 (bookmarathon.gen.go.kr) 인터넷 접수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보고서 "엄마 손은 약손이다" 결론은
엄마의 '손바닥이 붉은 줄은' 좋은 약이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릴 적, 배가 아플 때, 엄마 손은 특효약이었고,
머리 아플 때는 두통약이었고 해결제였습니다.
아플 때마다 사랑으로 낮게 하는 엄마의 손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깃든 약손처럼,
사랑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이 됩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캡슐

비타민 A, C, E의 보급
- 비타민으로 인한 수유기 병용 방해요소
- 면역력 강화, 노년기
- 눈의 건조감과 관해, 이명증
- 갱년기부진 등 폐 질환 예방
- 폐, 주근깨, 눈화, 인공눈물
비율할 방법
- 알코올, 담배, 스트레스, 과로
중심의 원화! 이제, 국산, 국
수출제품 수확량
아연의 보급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www.kucicfarm.com.kr
080-022-2200